

# 불교 복지시설 98년후 141곳 증가

## 조계종 복지재단 조사...시설 총 433곳

98년 이후 4년 만에 불교계 복지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002년 8월 실시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98년 총 292곳이었던 불교계 복지시설은 올 8월까지 433곳(141곳) 증가한 433곳으로 집계됐다. 아동복지시설(74곳), 노인복지시설(33곳), 장애인복지시설(13곳), 청소년복지시설(7곳) 순으로 불교 복지시설들은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복지재단이 2002년 현재 전체 불교계 복지시설 중 약 46%를 차지했다. 특히 사찰이 직접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17곳 이상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아동복지시설의 증가는 정부가 여성 육아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어린이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음도 반영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은 98년 50곳에서 66%(33곳) 증가한 83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13곳에서 26곳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호스피스나 납골당 등 장의복지시설 역시 3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다.

### 아동시설 가장 많아...55% 늘어난 208곳

### '에이즈·여성·환경' 등도 관심 기울여야

노인과 장애인 시설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을 시급히 확충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동국대 등 소수의 기관만으로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언어치료사, 유아교육사, 심리치료사 등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인력 양성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청소년과 근로자, 지역복지 시설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청소년 복지시설은 98년 23곳에서 7곳 증가하는데 그쳤고,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3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규모 지역 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 역시 3곳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정부의 복지관 정책이 종합복지관 설립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설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특수복지관 위탁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이즈, 여성, 인권,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복지부장은 "그동안 복지관 수탁 운영 위주의 시설 확충 위주에서 이제는 서비스 향상 등 질적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종단 행정소임자 등 대거 입후보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 직할·동화·은해·범어·통도사 경쟁 치열

이번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2대와 비교해 직능직은 경쟁률이 1.85대1에서 1.55대1로 낮아진 반면, 직선직은 1.66대1에서 1.71대1로 다소 높아졌다.

이번 종회의원 선거 입후보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총무원과 포교원 등 종단 행정의 주요 소임자들이 대거 종회의원에 입후보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종회의원에 입후보한 행정 소임자들은 직능직에 나선 원택(총무부장) 종훈(기획실장) 스님과 직선직으로 출마한 상운(포교부장) 성철(재무부장) 의연(호법국장) 스님 등 5명이다.

직능직의 경우 각 본과별(정원2명)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정원 20명을 먼저 선출한 뒤 각 본과로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현재의 본과별 후보등록은 의미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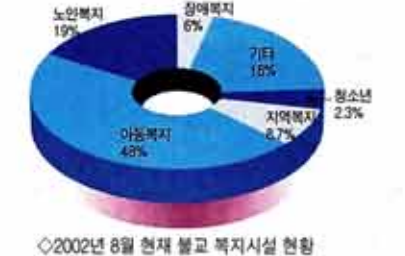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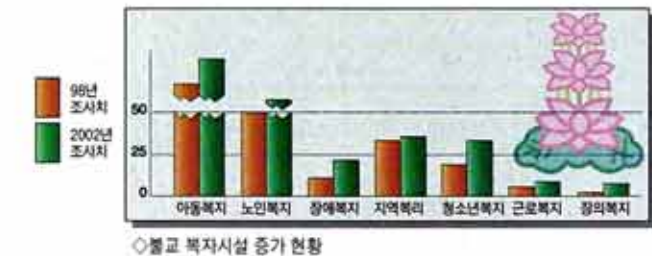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mahun@buddhapia.com

### ·직능별 입후보자 현황

분야	출마자	분야	출마자
총무원	성우, 무안	복지	종상, 영남, 덕문
선법	원택, 영진	통회	우연, 영해, 토성
장학	지호, 지복, 용남	법회	종훈, 범어
교목	지복, 성희	법정	범어, 정운, 차운, 영문, 도공
사회	지훈, 학남, 도진, 정만	포교	지훈, 지환, 정호, 오성, 종후
비구니	수현, 본리, 은실, 경문, 도로, 계호, 정성, 세한(미입선), 흥문, 세한(미국대)		

### ·각 교구별 입후보자 현황

본사명	출마자	본사명	출마자
직할교구	홍희, 용강, 지만, 자유, 지현, 성근, 광복, 범정	13교구 본지사	정만, 영남
2교구 본지사	성직, 성철, 세운	14교구 본지사	성근, 원택, 범선, 장영, 광진
3교구 본지사	정후, 도주, 대일, 영수	15교구 본지사	호현, 도문, 대봉, 재원, 지은
4교구 본지사	선복, 정호, 도원, 흥환	16교구 본지사	불출, 범어, 철우
5교구 본지사	한문, 각원, 진구	17교구 본지사	민정, 일화
6교구 본지사	한우, 광복, 영정	18교구 본지사	정근, 현로, 미연
7교구 본지사	인영, 선광	19교구 본지사	진만, 일문
8교구 본지사	범일, 범보, 효남, 정우, 상우	20교구 본지사	보경, 진화, 지현, 무자
9교구 본지사	혜순, 종운, 지은, 범공, 보현, 신봉, 세정	21교구 본지사	보신, 철우
10교구 본지사	무이, 원영, 준기, 복재, 광복	22교구 본지사	종현, 길호
11교구 본지사	장우, 종진	23교구 본지사	성국, 대원, 범정, 선진
12교구 본지사	선각, 현문, 향적	24교구 본지사	희범, 일관, 호재, 복원



# 동국대총장 11월 20일 선거

## 4명 입후보...이사회 '교수회 추천' 수용여부가 관건

동국대 제 15대 총장선거와 관련 교수회는 25일 정병조(윤리문화학과) 홍치유(물리학과) 홍기삼(국문과) 조희영(경영학과) 교수 등 4명의 총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이로써 동국대 총장 직선선거가 90년 이후 두번째로 실시된다. 하지만 동국학원 일부 이사회가 직선총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총장선거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교수회는 투표결과 순위 1, 2위 후보자를 총장후보 추천자로 개표 후 즉시 공포하고, 11월 21일 '교수회'에 이를 보고한 뒤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뒤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또 동국대 교직원 노동조합도 24일 총장후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대욱씨를 선출하고, 10월 말 선거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교직원 노조는 교수회와 협의를 거쳐 후보등록 및 선거일정은 합체하되 투표만 같은 날 다른 투표함을 설치, 별도의 개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교수회와 노동조합은 최소 2인~4인의 후보자를 선출, 이사회에 복수 추천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총장선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동국학원 일부 이사들은 교수회가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교직원 노조는 총장선거인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8일 불교병원 개관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이사들은 회의가 끝난 후 총장선거와 관련해 '동국학원 정관 43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명' 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교수회와 노조가 총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총장선거와 관련 11월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동국대 교수회 박종훈 회장은 "이사 모두가 교수회의 직선총장 선출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으며, 총장이 직선으로 뽑힐 경우 전체 교수들의 의견이 수렴돼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선거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사회에서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백담사 등 전통사찰 6곳도 문화재 보수비 지원될 듯

##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 긍정적 답변

그동안 국가로부터 문화재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6곳에도 문화재보수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현재 국립공원 내 21개 전통사찰 가운데 15개 사찰에만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보수비를 나머지 6개 사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

경노동위원회에 90년 문화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의 10~30%를 문화재보수비로 사찰에 지원키로 했으나 일부 사찰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90년 공원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사찰에 지급하기로 조계종과 합의하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열린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립공원입장료 수입의 10~30%를 21개 사찰에 지원키로 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느 사찰에 몇 %를 지급할 것인지 등의 세부 사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에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의원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인제 백담사, 무주 안국사, 청송 대전사, 영주 회방사, 영암 도갑사, 부안 내소사 등 그동안 문화재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하던 6개 사찰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내년도 예산이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의 과다 계상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환경부 예산에서 이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도록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 ■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신행상품**

1. 디지털 불경이나 전자목탁 등 신행관련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① 편리하므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② 실질적 도움은 될 것 같지 않다

2. 신행상품들을 실제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설문 참여: 10월 3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4호 A판 8면에 실립니다.

###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운영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02-722-4162, bukhanews.com

---

### 꿈을 ★ 이루십시오!

정신력을 키우고 가뭄 내간다면 귀의 풍도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곳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오.

귀의의 소중한 정열을 이루십시오!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02) 782-0022 www.sayavatar.com

# 2003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내 유일의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2003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II.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과정	연구과정
불교학과	불교교학	00명	00명	00명
	상당심리학			
	명상심리학			
상당심리학	요가치료학			

## III.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과 상관 없음)

## III.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 2002. 10. 21(월) ~ 11. 9(토)  
 장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www.sgsg.ac.kr)  
 2) 전형일시 : 2002. 11. 16(토) 9:00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 IV.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 V. 전형료

50,000원

## IV. 입학자발표

1) 일시 : 2002. 11. 22(금) 10:00  
 2) 장소 :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 ☎ 02)808-3321, 6582

## VII. 특 전

1) 성적우수장학금 및 특별 장학금 지급  
 2) 취득가능 자격증 > 불교학과 : 전법사, 명상치료사, 불교상담사 > 상당심리학과 : 상담심리사, 명상치료사, 요가치료사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808-3321, 6582 Fax 02)808-6581 주소 : 우)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 본 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유 수익용기부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 교 수 초 빙

## I. 조 병 분 야

전공	초빙인원	임용예정일	비고
상당심리학	0명	2003. 3. 1	계약제 임용
명상학 또는 명상심리치료학	0명	2003. 3. 1	*
요가심리학	0명	2003. 3. 1	*
미술치료학	0명	2003. 9. 1	*

## II.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III.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명자료,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각 1부  
 라. 연구실적물('98. 11. 1.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마.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  
 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IV. 제 출 기 한

2002. 11. 25(월) ~ 2002. 11. 29(금) 17:00 까지

## V. 제 출 지

우)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1층 행정실)

## VI. 기타 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2. 11. 2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작거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자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808-3321, 6582 Fax 02)808-6581

# 회원모집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고등학교(대전)·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장벽에서 납골·49제까지 완벽한 서비스)

전철 1호선 권역역 도보 10분, 자체주차장과 공용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031)471-3322, 02)802-3493 www.bojangsa.co.kr